초록번호 18-3

제 목	국 문	북한의 장수학 연구에 관한 고찰
	영 문	A Study of 'long-life(longevity study)' in North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상구, 이신재,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Yi Sang Gu, Lee Shin Jae, Moon Ok Ryu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상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1998 년 11 월		

1. 연구 목적

북한의 의학에 대한 연구는 공개 정보가 부족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급속히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양상은 더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주체의학의 강화 시책으로 "장수학"이라는 학문의 장르를 만들어 독특하게 연구, 발전시켜 왔다. 북한의 장수학 교과서와 실천지침서 등을 근거로 1) 북한 장수학의 구성과 내용을 알아보고, 2)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남한의 건강법, 장수법에 대하여 체계적 정리와 대 국민 교육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게 하며 3) 향후 남북통일의 시대에 요구되는 보건의료 부문의 통일을 위한 상호인식 및 교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북한의 '장수학' 정립의 기초 교과서로 활용되는 "장수학(이 정복,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87)"을 기본자료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에 발간된 "생활과 건강장수 ①, ②(의학과학출판사, 1998, 6)"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수학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생활지침 등 장수학 연구의 결과들을 고찰하였다. 남북간 의학용어의 차이와 기본개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북한말 사전과 고려의학 용어집을 참조하였으며, 북경의대교수 및 연변대학의학원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현재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사 및 월남한 북한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자료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 및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남한의 장수학 관련 학회(노년학회, 노인병학회, 노화학회)에 문의하여 국내의 관련학계의 자문을 구하였다.

3. 연구결과

북한의 장수학의 체계는 기초부문, 임상부문, 생활실천부문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의 기초이론 부문을 보면 1) 수명과 노화에 대한 정의, 2) 노화학설 고찰로서 생물학적 노화학설 11종, 생화학적 노화학설 11종, 형태학적 노화학설 6종, 생리적 측면에서의 노화학설 6종 등을 인용하여 서술하면서 최종적으로 분자생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3) 노화의 병리학, 생화학 및 면역학적 측면에서의 규명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임상적 측면에서는 Geriatrics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만성퇴행성질환 및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 및 치료가 장수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질병은 호흡기 감염증,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동맥경화증, 간염 및 간경변증, 당뇨병, 고지혈증 및 비만증, 관절염 등 암과 사고를 제외한 10대 사인 질환의 대부분을 관련영역으로 두면서 노인성 감기의 특징, 노인성 폐렴의 예방 등 노인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를 위한 실천지침과 생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련 카프카즈 지방, 파키스탄의 펀잡지방, 남미의 빌카밤바 지방, 중국에서의 survey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생활양식, 운동, 영양을 3개의 기본축으로한 건강장수법을 서술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잠과 건강과의 관계, 수명과 영양의 관련성, 식사를 통한 장수요법, 술과 장수, 담배와 장수라고 명확하게 관련지어 기술함으로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좋게 제시하고 있었다. 자료들에서는 북한의 평균 수명이 74세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최근 북한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9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37%이상으로 나오는 등 극심한 식량난에 의해 위의 모든 결과는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고찰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알아본 북한의 장수학은 1) 주로 타국의 연구성과를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것이 많았으며, 자체의 실험이나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적었다. 2) 인용한 모든 자료는 정확한 제목이나 논문의 출판연대를 알 수 없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3) 유럽이나 미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구 소련과 중국의 자료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었다. 4) 서양의학의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병을 규정하고 서술하고 있으며, 치료방법에서만 한방(고려의학)처방을 부가하여 기술하는 형식의 양한방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위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면서 1)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성과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고 문헌고찰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료의 정확성과 현시성을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보완 및 추구조사가 필요하며, 2) 최근의 북한의 식량난과 전염병의 만연은 장수학의 기본개념 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절대빈곤의 기아선상에 있기에 의약품 부족의 한 대처방안으로서 한방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 남한의 의학이 질병의 치료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의학이 '장수학'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위생선전활동(건강계몽활동)을 중요시하는 예방의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은 남한에서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일 것이다.